

“한국 북핵 해결 없이 신용등급 상향 없다”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피치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11일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피치의 아시아지역 등급조정 담당 수석인 제임스 맥코믹씨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인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 없이 한국의 등급 조정은 어렵다”며 “현재의 등급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피치는 지난해 6월 한국경제에서 고유가와 원화강세가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으나 보수적 재정운영과 외환보유고 규모가 긍정적이라며 국가신용등급 ‘A+’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年500만대시대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0만대를 돌파해 525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조남홍 자동차공업협회장 등 정부와 업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차에서 “올해는 자동차 생산의 전환점이 마련되는 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자동차 생산이) 국내 400만대, 해외 100만대에 달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회를 활용하고 품질, 기술경쟁력 향상에 매진해 자동차산업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은 국내 384만대, 해외 99만대였지만 올해는 국내 생산량이 400만대로 늘어나고 해외 생산량도 가이샤 슬로바키아공장의 본격적인 가동 등으로 125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은 일본(1천148만4천대), 미국(1천126만4천대), 중국(728만대), 독일(582만대)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라섰다. /연합뉴스

DJ, 자유상 수상차 독일 방문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초청을 받아 12일부터 7박8일간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한다.

김 전 대통령은 14일 독일외교협회를 방문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16일에는 베를린 자유대학이 정치, 사회, 학술분야에서 자유의 이상 실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제1회 자유상’을 수상한다.

김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독친선협회 소속 정치인, 외교관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독일 현지 언론, 한국 특파원들과 회견한 뒤 19일 귀국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제섭 대표 사퇴 ‘배수진’... ‘빅2 압박’ 효과 있을까

차은 ‘황당’李는 ‘여유’

두 진영 반응 엇갈려... “중재안 수용 못해” “양보 없다” 대치 계속

한나라당이 대선후보 ‘경선 물’ 문제로 분열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강제섭 대표가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대선 주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표직 및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오며 따라 경선 물 내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대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어느 한쪽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경우 경선 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당은 안정체도를 찾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결과로 인해 강 대표가 실제로 사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당은 극심한 혼돈의 소용돌이로 빨려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이명박 반응 엇갈려= 강 대표의 최후통첩에 대해 양 주자 진영은 극명하게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며 엇갈린

해법을 제시했다. 전 대표측 한선교 대변인을 논평을 내고 “당 혼란을 수습해야 할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하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지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측근인 최경환 의원은 “강 대표의 사퇴시사는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 같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무책임하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을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냐”며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이 전 시장측 정두언 의원은 “박 전 대표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면서 “중재안을 받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박 전 대표측의 중재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향후 전망은=강 대표의 사퇴 배수진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여전히 교차점 없는 평

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양측은 오히려 기선잡기 차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갈 태세여서 강 대표 조기사퇴로 인한 당 분열위기가 그만큼 더 빨리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강 대표의 사퇴 배수진은 양 주자 모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는 측근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강 대표와 이 전 시장이 한 편이 돼 박 전 대표의 중재안 수용을 압박하는 성격이 짙어지면서 양 주자간 싸움은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띠는 형국이다.

일단 중재안이 끝내 거부되고 주자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부는 당장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의 사퇴의지가 완강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당원 권익창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11일 염창동 당사에서 강제섭 대표의 경선중재안은 무효라며 당원들이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의장-박상천 대표 회동 親盧 그룹 대통합 참여 급선회 이인제 의원 5년만에 민주 복당

범여권 통합 급물살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상천 대표는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하는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을 해체하는 방식의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의 대통합 협상이 현실화되자 최근까지 당 사수 입장을 보였던 열린우리당 친노(親盧) 그룹도 ‘소수의 당 사수는 있을 수 없다’면서 대통합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한편, 이인제 의원은 11일 국민중심당을 탈당하고 5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12석에서 13석으로 늘어난 반면, 국중당은 5석에서 4석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이번 복당으로 그동안의 정치 활동 과정에서 8개의 당적을 보유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와 함께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민주당과의 통합은

시설

지역투자 유치 공무원 의식변화 시급하다

전남지역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는 지자체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10일 개최한 도내 투자기업 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인들은 투자업체와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더 많은 투자를 하려 해도 미온적인 행정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수 화양지구에 3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관광리조트를 건설 중인 한 경영인은 “관광리조트는 다 지어가는데 진입로 공사는 시작조차 안 됐다”며 “진입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리조트를 지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경영인도 “담초 여수에 1조 2천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나 투자 인센티브 부족으로 2천500억원 정도만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시설이 완벽해도 기업 유치가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것이 지방의 실정

이다. 그런데 투자기업에조차 예산타령이나 하며 기반시설을 제때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인이 전남지역에 오려고 하겠는가. 또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면 투자환경이 열악한 전남지역을 선호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기업투자 없이는 일자리가 없고 지역경제의 미래도 없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기업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자세로 투자 유치에 임해야 한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지방이 수도권보다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 법규나 따지고, 예산부족이나 틀먹이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기업유치는 어려워진다.

전남도는 경영인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투자유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고아 수출국’ 오명 못 벗어난 입양문화

11일은 제 2회 입양의 날이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입양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기존자들의 절반 정도가 입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 지난해까지 입양아동의 69.8%가 해외가정에 입양될 정도다. 아직도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해외입양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해외입양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의 어두운 역사다. 전쟁고아와 가난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 미혼모의 아이들이 그 대상이었다. 이런 우리도 달라질 때가 됐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우리 땅에서 태어난 갓난 아이를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입양문화가 부진한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혈통주의와 가부장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남의 자식 키워 봐야 소용 없다’는 편협된 인식도 한 몫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 입양을 꺼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는 잘못된 관습과 편견에서 탈피해야 한다.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라고 한다. 입양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입양아동을 기르는 것은 송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사회가 건강하다는 징표다.

국내입양을 확대해 입양문화를 활성화하는 일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몫이다. 입양의 날이 입양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고 우리가 낳은 아이는 우리가 키우겠다는 범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자여권에 얼굴·지문정보 수록키로

정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여권에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수록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열린 전자여권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얼굴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자여권 발행국은 모두 수록하는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또 “지문 정보의 경우 특성상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율이 현저히 향

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발급장비 선정과 관련, 외교부는 현재 사전조사서 여권 발급기를 업그레이드해 활용된 뒤 현 장비 임차계약 종료 시점인 2010년 신규 장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과정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접수 및 교부 업무를 수행하고 여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가 전담하는 ‘중장급종식 발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9월 APEC에 김정일 초청...4국 정상회담”

김종률의원 “이해찬 방미 의사타진” 버시바우 “미 한국전 종료선언 준비”

열린우리당이 오는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지난 5일 방북활동을 벌이고 돌아온 우리 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한·미·중 3개국 정상 회의는 9월 APEC 정상회담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해 4개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해찬 전 총리가 10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도 이 같은 4개국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9일 김 의원을 포함한 우리당 방북단 일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은 9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군 공식 종료와 영구적 평화체제 협정 서명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좀 나눠서 뛰면 좀 좋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재점화

매달 12일 '엑스포 시민운동의 날'...17일 주한외교사절단 여수 방문

지난달 9일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2012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심사 이후 주춤했던 박람회 유치 열기가 본격적인 외교전과 함께 재점화되고 있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7~18일 61개국 100여명의 주한외교사절단이 여수를 방문하게 된다.

이들은 17일 여수시청에서 박람회 준비 상황을 청취한 뒤 순천 낙안읍성과 송광사, 광양제철소 등을 둘러보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게 된다. 18일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배로 시찰하며 오현섭 여수시장이 주최하는 오찬을 한 뒤 오동도와 흥보관을 둘러보고 상경하게 된다.

또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여수시청 관계자들이 경제협력단을 구성, 오는 15일부터 17일간 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을 방문, 박람회 유치 협력활동을 펼친다. 또 시와 GS칼텍스는 13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환경미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소망 벽화가 제작돼 행사 후 박람회 홍보관에 설치된다. 이밖에 여수시는 매달 12일을 엑스포 시민운동의 날로 지정, '친절, 질서, 청결, 봉사' 등 4대 엑스포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BIE실사 사전,동영상 콘테스트와 UCC(순수제작물) 공모대회, 엑스포 로고송 공모 등을 통해 전국적인 유치 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1일 취임식을 가진 김부현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루 뒤인 12일 바로 여수를 내려와 박람회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후보지를 둘러보면서 박람회 주관 부처인 해양부의 박람회 유치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인국내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대처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